

‘빈삼각을 두지 말라’... 신뢰·협력으로 미래 금융 준비

은행, 위기를 기회로

바둑 격언 중 ‘빈삼각을 두지 말라’는 말이 있다. 급소를 당하기 전에 미리 자신의 삼각 모양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또 빈삼각을 만들지 말아야 할로가 많다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기도 자신의 모양을 지키기 위해선 상대방의 돌에 기대야 한다. 위기의 상황이지만 나아가기 위해선 본인의 모양을 지키기 위해 협업해야 한다는 뜻이다.

2일 4대 금융지주는 금융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인 ‘고객의 신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기, 금융의 본질적인 요소마저 잃는다면 금융의 존재 이유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객 신뢰 회복, 내부통제 혁신 핵심 플랫폼 금융 도입, 고객 접근성 향상 임베디드 금융으로 ‘생태계’ 확대

◆ 고객신뢰 회복... 내부통제 강화

4대 금융지주는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마련,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업무범위를 정한 뒤,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기준의 작동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제도다. 금융권 횡령이나 미공개 정보활용, 불완전 판매, 불법계좌 등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업무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효성 있게 책무구조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KB금융은 준법감시인 아래 소비자보호분부를 회장 직속의 C레벨급 소비자보호 담당으로 확대 재편했다. KB금융 준법감시인은 상시감시, 책무관리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해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더 강화한다.

신한금융도 준법감시인이 소비자보호분장을 겸임하던 것을 해제하고, 준법감시파트를 신설해 소비자보호분문에서 분리했다. 준법감시 파트는 회장 직속으로 편제되며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만을, 소비자보호분장은 소비자보호 업무만을 수행한다.

우리금융은 감사위원회 아래에 있는 윤리경영실을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거



쳐 만들어지는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산하로 옮긴다. 윤리경영실은 그룹사 임원 감찰, 윤리 정책 수립·전파, 내부자 신고 제도 정책 수립 등을 총괄한다.

앞서 우리금융은 윤리경영실장으로 검찰 출신인 외부 법률 전문가 이동수 변호사를 영입했다. 경영진의 일탈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내부통제 체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여러 제도와 시스템을 실효성있게 개선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뼈아픈 사고로 고객에 심려를 끼쳤다”며 “우리금융을 더 단단한 신뢰의 기반위에 바로세우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만큼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근원적으로 혁신하고, 윤리적 기업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빅테크·핀테크 기업과 협업

대외적으로 오는 20일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하는 등 불확실성이 고조된 만큼 빅테크·플랫폼 기업 등 신기술·혁신 기업과 협업해 금융 경쟁력을 강화한다.

우선 임베디드 금융을 강화할 전망이다.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은 직역하면 내장된 금융으로, 비금

융 회사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중개하거나 재판매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플랫폼에 금융기능을 내장하는 것을 말한다. 커머스 앱에서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거나, 은행 대출 상품을 연결해주는 형태다.

앞서 KB금융의 계열사인 국민은행은 삼성금융네트워크의 통합앱인 모니모와 제휴했다. 삼성금융네트워크는 삼성그룹의 금융 자회사인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화재, 삼성증권의 통합브랜드다. 이들의 경우 은행이 없어 금융활동의 기본이 되는 입출금 통장이 없는 만큼 국민은행과 제휴해 앱 내에서 계좌개설, 조회, 이체 등 बैं킹서비스를 구현했다.

제4인터넷은행과 손잡고 금융생태계 형성에도 기여한다.

앞서 우리금융의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지난해 제 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KCD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를 전달했다.

◆ 초고령화 사회대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상품도 출시한다.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만큼 시니어층을 위한 전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금융은 앞서 시니어 특화브랜드 ‘하나 더 넥스트’를 출범하고 시니어 세대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화서비스를 마련했다.

하나은행·하나증권·하나생명보험 등 그룹내 관계사간 협업을 바탕으로 은퇴설계, 상속·증여, 건강관리 등 금융과 비금융 분야 전반을 관리한다.

고령화 대비, 은퇴·상속 등 솔루션 시니어 전문상담사 투자상품 설계 빅테크와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

투자상품 및 은퇴특화 포트폴리오 설계에 대한 연수를 수료한 시니어 전문 상담인력들이 배치돼 ▲은퇴 필요자금 분석 및 미래자산 포트폴리오 설계 ▲유연대용신탁을 활용한 스마트한 자산 이전 준비 ▲건강관리 및 비금융 시니어 특화콘텐츠 등의 노후 준비 솔루션을 제공한다.

신한금융의 신한은행은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세대를 대상으로 은행업무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시니어 특화점포를 마련했다.

일반 영업점과 달리 번호표 글씨는 크고, 대기번호 안내 소리도 크다. ATM기 또한 글씨 크기를 키우고 돈 찾기(출금), 돈 넣기(입금) 등 쉬운 용어로 메뉴를 구성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내수 부진 및 수출 둔화,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도전적인 경영환경이 예상된다”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산업생태계의 변화에 맞춰 과제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시니어 특화점포인 신림동 지점

/신한은행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플랫폼 기업과 상생 생태계 조성”

» 1면 ‘새해 금융권 화두’서 계속

내실있는 혁신서비스 기업과 협력

오는 3월 연임이 유력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복잡한 전략이나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에 충실해야 한다”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엄격한 내부통제, 효율적인 비용 집행으로 내실을 다지겠다”고 했다.

우리금융은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조직 전반을 추스를 방침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근원적으로 혁신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모든 영업과 업무과정에서 내부통제가 효율적으로 녹아 들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금융지주는 신기술,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강

화를 모색한다. 무리한 사업 확대보다 내실있는 혁신서비스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리딩금융’을 이끄는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은 더 이상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라며 “임베디드 금융(비금융 플랫폼에 내장된 핀테크 서비스)을 통해 우리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휴사로부터 새로운 고객

을 확보하는 공동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자생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수·합병(M&A)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직에 심각한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기술 및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제휴를 지속하고, 파트너십과 거래 확보를 통해 본업과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유리 기자